

‘도전 골든벨 축제’에 1억3000만원 후원금 ‘화제’

목포지역 기업인 25명이 기탁 우승자 장학금 500만원 등 지급

목포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참가해 벌인 ‘도전! 골든벨 축제 한마당’에 무려 1억3000만원의 후원금 기탁이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목포시가 주최하고 (재)목포장학재단이 주관했으며, 102명의 참가학생과 학부모, 관람자 등 총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열렸다.

시에 따르면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국 41개 대학 대학생 102명(남 50명 여 52명)이 참여해, 50문제를 모두 맞춘 만점자는 이수진(대전대 한의대 1), 조수빈(연세대 의과대 3) 등 2명이 장학금 각각 500만원과 자랑스러운 우수인재 장학패를 받았다. 또 출제문항 각 단계를 통과한 대학생에 대해서도 풍성한 장학금을 차등 지급했다.

문제를 푸는 중간 중간에 ‘모듬 북사물놀이’, ‘에버그린 공연’,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곁들여져 축제의 맛을 살렸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지역 우수인재를 살려 지역의 미래 자원을 양성하는 취지로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손길이 줄을 이었다.

목포신협이사장, 목포한사랑병원장, 미항집합대표 등 총 25명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후원금이 기탁됐다.

정종득 시장은 “지역 인재양성이 아발로 지역발전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백년대계”라며 “꿈과 야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함으로써 고향의 든든한 울타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지난 24일 목포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벌인 ‘도전! 골든벨 축제 한마당’. 이날 지역기업들이 1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진도읍 조급시장 현대화사업 완료

진도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진도읍 조급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4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동진 진도군수는 “조급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46억원을 들여 조급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조급시장 연면적은 1349㎡로, 1층에는 소매점, 좌판, 어물전, 2층은 관리사무소와 회의실 등으로 구성됐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조급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해 상인들과 고객 편의 증진을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upark@

목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문 열어

목포대 캠퍼스에 개소

목포 지역 어린이들의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관리를 맡게 될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목포대 목포캠퍼스에 문을 열었다.

목포시는 27일 “100인 미만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소규모 집단급식소의 경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수탁자 선정공고를 내고, 목포대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센터장·팀장·팀원 등 9명이 근무하면서 관내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보육시설 152개소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 급식운영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관내 어린이 급식시설을 관리하면서 전문 영양사가 매달 균형적인 표준 식단과 레시피를 작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제공하고, 영양유 월령 및 연령을 고려한 별도의 식단을 보급한다. 또 어린이집 원장과 조리원, 급식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집합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한국 해조류산업 발전 이끌 협의회 탄생

해조류산업발전협회 발기인 대회

한국 해조류산업에 생기를 불어넣고 발전을 이끌 협의회가 창립된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청에서 해조류 생산자 단체, 연구기관 등 전문가, 가공·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대표 등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가칭) 설립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발기인은 한국조류학회장을 역임한 부경대 김창훈 교수, 아모레퍼시픽 피부과학연구소 관계자, 학교급식 담당하는 학교 영양교사 회장단 대표 등이다.

부경대 김창훈 교수와 완도금일수협 구택중 조합장이 발기인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발전협회는 1조원대 이상의 해조류산업 시장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원 모집이 끝나면 다음달 창립총회를 할 예정이다.

구택중 조합장은 “오는 4월 열리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협의회를 해조류 가치 향상, 수요 증가 대비 등 해조류산업 발전을 주도할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새얼굴

“범죄로부터 주민 안전 확보 진력”

박우현 무안경찰서장

박우현(45) 총경이 최근 제67대 무안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박 서장은 최근 취임사에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범죄와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등 주로 수도권에서 근무한 박 총경은 온화하고 따뜻한 인간미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업무능력이 뛰어난 기획통이다.

신안군 안좌면 출신인 그는 목포영흥고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2년 3월 서울경찰청에 경위로 임용돼 경찰종합학교 수사학과 교수, 미국 FBI 교육 이수,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 전남경찰청 홍보담당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전북

정읍, 시내 주택 도시가스 5월까지 공급

내달 5일~10일 사업설명회... 21일까지 신청 접수

정읍시는 올해 시행사인 전북에너지서비스(주)와 함께 시내권 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전력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월5일부터 10일까지 동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21일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접수 후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도시가스 보조금 지급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설치비 등 지원 여부를 결정, 오는 5월중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공급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세대당 2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2014년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질 좋고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의 경우 12개 지역 275세대의 신청을 받아 초산동 2개 지역

(백조 아파트 주변, 영생교회 주변)과 상동 3개 지역(서울반점 주변, 동신초등학교 주변, 라이온빌라 주변) 86가구를 지원했으며, 공평동 목련아파트 346세대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읍지역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전체 5만1757세대 중 시내권 2만6297세대의 56%인 1만4774세대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1만6484세대의 76.20%인 1만2562세대, 단독주택은 9813세대의 22.5%인 2212세대에 이른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정읍시가 올해 지역 내 단독 및 공동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도시가스관 부설공사 현장.

단신

정읍경찰서, 금요명사 초청 ‘동학’ 특강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지난 24일 오전 금요명사로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조광환 부소장을 초청해 정읍경찰서 경찰관, 직원 및 의경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동학’이라는 주제로 24번째 특강을 실시했다.

조 부소장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UCC 영상을 보여주며 학문적으로 보다 더 고증되고 연구된 역사적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동학농민운동은 농민들이 사회개혁을 요구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었고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민족 운동이었다”며 “평소 역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군-소방서 독거노인 돌보미 업무협약

고창군은 27일 고창소방서(서장 황기석)와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U-care)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은 고령화, 핵가족화로 독거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소방서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U-care 시스템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환경까지 돌볼 수 있는 노인 복지망으로 거동불편 노인, 치매 노인이 혼자 생활하면서 몸이 불편해 자칫 초래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남원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시스템’ 도입

남원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사전

과 차량을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차량이동 문자 안내를 실시한 후 차량이 이동하지 않을 경우 단속할 방침이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전북도민체육대회·집행위원회 발대식

지난 24일 군청 3층회의실에서 황숙주 순창군수와 순창군 체육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올해 전북 도민체전은 오는 9월26일부터 28일까지 순창군 일원 29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24일 군청 3층회의실에서 황숙주 순창군수와 순창군 체육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올해 전북 도민체전은 오는 9월26일부터 28일까지 순창군 일원 29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부안군수 선거법 위반 조사 받아

선관위 “도 선관위 심사후 처벌수위 결정”

군 관계자 “지역 농산물 홍보 위해 출연”

부안군수 영상물 모델광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 제86조 7항(공무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광주일보 17일자 11면 보도) 최근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김호수 군수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부안군 관내 한 콘도업체 로비에 부스를 설치하고 누에 참봉 홍보 영상물에 지난 17일까지 상영된 동영상 광고물에 출연했다.

김 군수는 2종의 광고물에 10초 동안 출연해 산바다가 어울어진 부안 특산품을 추천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월25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6조 7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신문 등 광고물에 출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제작 예산 집행비용 등을 조사하면서 선거구민들이 보는 광고물에 출연한 것이 명백한 선거법, 현행법 위반이기에 조사 중”이라며 “도 선관위의 심사를 거쳐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김 군수는 선거법에 이 조항이 신설된 지 모른 채 지역 농산물을 홍보해 농민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서 출연했다”고 해명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정읍우체국, 우체통 활용 도로명 주소 홍보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정읍우체국(국장 심상만)이 우체통을 활용한 도로명 주소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읍우체국은 27일 “정읍지역에 설치된 131개소(군부대 지역 제외)의 우체통에 우체통의 도로명 주소를 안내해 게시했다”고 밝혔다.

심상만 국장은 “지역 내 배달우편물의 도로명 주소 사용율이 20% 미만인 등 도로명주소 사용 혼란과 불편이 있다”며 “주요지역마다 설치된 우체통을 활용, 홍보에 나서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국민편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